

# 고흥군, “청년 전문가 양성으로 경제적 자립 돕는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청 우주홀에서 '2023년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고흥 거주 청년들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청년들이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순천, 광주 등으로 가야 해 시간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전문자격취득 13개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해 228명이 신청했으며, 204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수강 신청이 저조한 '차대&실버인이지도사'과정을 제외한 12개 과정으로 '도배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기계차운전기능사, 요양보호사, 미용사, 네일아티스트, 와인소믈리

에, 반려동물관리사, LED(원예)플라워지도사, 유튜브크리에이터, 청춘예찬(명사특강)'이 운영된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 수강생은 “고흥에서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과정을 개설해준 군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많은 청년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군수로서 우리 고흥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고흥을 떠나지 않고 고흥에서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흥에 터 잡고 살고 있는 재촌 청년도 중요하다. 고흥의 청년들이 고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주·드론산업, 스마트 농축산업 등 청년미래 일자리 창출과 청년주책 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청 우주홀에서 '2023년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고흥거주 청년들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고흥군 제공

## 해남, 군수 주재 청렴회의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함께 청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 주재 청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군수의 청렴의지를 표명하고 간부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확보를 통해 청렴실천의 실천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기적으로 추진한 기관장 주관 청렴회의의 집중운영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회의를 통해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방법을 공유하고,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와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갑질 유발 요인 발굴과 직장내 괴롭힘 근절 서약 등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 실천을 다짐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모았다.

앞으로도 해남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시책 발굴 및 진행사항 점검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윤보현 기자

## 완도군,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길 올라

완도군은 최근 완도비파영농조합법인 가공 공장에서 '완도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박재선 군의원,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걸 중국 JHE글로벌 대표, 김수만 비파영농조합 대표, 오진영 유자발전소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전남 농식품 수출 확대 마케팅 보드 육성 사업'에 완도군이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수출 상품은 완도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비파 와인, 비파 농축액, 색깔보리 커피 등 3종으로 JHE글로벌을 통해 광양항에서 선적, 중국에 도착한 후 서안, 상하이, 은주시 등에 풀리게 된다.

상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및 판매될 예정이며,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은 중국 JHE 글로벌과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통해 완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비파 음료 및 와인, 색깔보리 커피, 색깔보리 해초 면, 유자 젤리 스틱, 전복 비파 음료 등 6종을 올해 말쯤 수출하기로 협약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농산물이 수출된 것은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기념식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완도 농산물이 많은 해외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HE 글로벌의 이문걸 대표는 “이번에 수입하는 완도군 농산가공품은 중국 내 가장 큰 규모의 박람회인 중국양림농고회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서 “완도 농산가공품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백나영 기자

## 보성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30% 할인

보성군은 22일까지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몰'에서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성몰 추석 특별 할인행사는 160여 개 업체의 430여 개 농특산물 제품을 전라남도·시·군 협업 판촉 기획전 사업과 연계해 30% 할인 판매하며, 전 제품 무료배송, 구매자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추석 선물 세트로 보성군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 '보성을 다(多·茶)담다' 2종을 판매한다. 구성품으로는 한봉 허니스틱, 녹차 비누, 울벼살, 보성물 5천 원 쿠폰 등이 포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보성의 농수특산물을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특별 할인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몰'은 차, 쌀·잡곡, 키위, 토마토, 꼬막, 발효·가공식품 등 160여 업체의 1천여 가지 상품이 등록된 보성군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이다. 지난 2022년 매출액 42억 원, 2023년 8월 말 기준 33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농가와 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강종수 기자

## 진도군, 청년 창업 위한 창업스쿨 개강

진도군이 청년 창업스쿨을 개강한다. 청년 창업스쿨은 창업을 원하는 청년 농·어업인의 제품 판로 확보와 판매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무료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다.

교육은 14일부터 6주동안 청년센터에서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금요일, 총 12

회 진행된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MZ세대부터 중년층의 주된 소비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의 이해 ▲라이브커머스 카테고리별 상품 PT ▲상품별 핸들링

▲라이브커머스 실전 노하우 및 방송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지 쇼호스트 아카데미 대표강사를 초빙, 모의 방송 등 교육과 실습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진도 청년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이 전국 각지에 유통되고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평 기자

## 장흥문화원, 읍·면 지회 설립으로 문화활동 시동

장흥문화원(원장 김명환)은 최근 10개 읍·면에 걸쳐 지회를 설립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문화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 내용은 읍·면 지회장 임명장 수여, 문화원장 강연, 장흥문화원 사업 설명, 각 읍·면 문화재 현황 및 보존 방법 강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용산면 학생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학술응원과 누락된 장흥 문집 해제, 비문 탁본 및 탁초 사업이 필요하고, 안양면 사촌리 당산제 보존, 연말에 공약사항 이행보고, 문화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12월에 개최, 장동면의 반계사 정비 및 신복구석기 유적에 대한 관심 등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백두연 기자

# 공정과 상식